

身土不二의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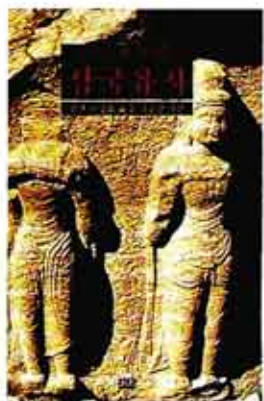
土種 홍화씨
임양산 土種 홍화씨기 왜 품은가?
● 지리산자락 임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현충암 신모(神母)에 의해 조성했다는 경주 선도산 마애삼존불. 파손이 심각하지만 따뜻한 신라인의 신앙심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익산 마복사지킴이 석양에 의해 드러난 웅장한 모습이 동방최고의 석탑임을 입증한다.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우리민족의 가장 위대한 고전. 13세기 일연스님은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뼈통을 수 없는 고전이다. 해방이후 출간된 10여권의 번역본 가운데 국내 번역본보다 수준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읽기 쉽다는 리상호(북한과학연구원 고전연구실)씨의 역주본이 강운구씨의 사진을 곁들여 국내에서 출간됐다.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는 북한과학연구원 고전연구실이 지난 1950년대에 번역, 1980년에 펴낸 책이다. 여기에 사진작가 강운구씨가 4년동안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역사와 현장을 탐사하며 찍은 94장의 컬러사진이 수록됐다. 또 생소한 북한말과 고어를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北 리상호씨 역주본
강운구씨 사진 곁들여

조은전씨(성균관대학원 한문학과)의 꼼꼼한 교열을 통해 읽기 쉽게 편집됐다. 북한의 번역과 남한의 사진이 <삼국유사>를 통해 만난 것이다.

5권 9편으로 구성된 <삼국유사>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부터 시작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건국신화와 불교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양의 역사서지만 <삼국유사>가 전하는 신화, 전설, 설화 등의 무대를 지금도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며 스님이 필자인 만큼 불교적인 내용이 풍부하다. 이 역사적 사실을 사진으로 함께 읽는 <삼국유사>가 확인하고 있다.

일연스님은 민중사이에 구전되어 오던 설화를 수십년간 수집한 뒤, 만년에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이 책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까지 권, 값 2만원>

역사의 '속내찍기' 4년 "셔터 누를때 기다림은 수행"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펴낸 강운구씨



"어떤 일을 할 때 알맞은 때가 있다. 그것은 그 일의 때일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본성을 알면 하나다. 마치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것처럼..."

사진작가 강운구(58)씨가 사진으로 읽는 <삼국유사>를 펴냈다. 경주 황룡사지, 강포암은사지, 익산 마복사지, 선도산 마애삼존불 등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2백여 지역을 직접 찾아가 영글어 담은 것.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30년 넘게 활동해 온 그는 이번이 수없는 초점을 맞추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을 했다고 토로했다.

당대 선조들의 절망했던 서원과 그 속에 스며있는 회·노·애·락. 그리고 그 대안으로 표출된 산물들을 한 컷의 사진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흠어진 마음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마음의 고향을 찾아간 것처럼 편안했다는 강씨는 "역사의 현장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본래의 모습을 연상하며 주변을 꼼꼼하게 바라보았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이야기와 현장. 그리고 카메라가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작업과정을 소개했다.

<삼국유사>의 역사적 현장을 사진으로 읽을 수 있는 순간과 방향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림'을 '수행'으로 여기면서 마음의 초점을 수없이 맞추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직관될 때 어지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래서인지 무너진 탑과 폐사지를 담은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우리 역사의 실화가 한아름 담겨 있다. 사진을 유심히 살펴봐 읽으면 딱딱한 정사가 아닌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처럼 훌륭한 재미를 느낀다.

강운구씨는 95년 여름부터 4년여동안 <삼국유사>에 나오는 2백여 곳을 찾았다. 1곳을 촬영하는데 적게는 1백번에서 5백여번의 셔터를 눌렀지만 단 한 컷도 허투루 찍은 것이 없다. 250분의 1초를 위해 하루종일 마애불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약력

- 1941년 경북 문경 생
- 경북대 영문과 졸업
-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
- 푸리잡은 나무 편집위원 등 역임
- 현재 프리랜서 활동중
- 저서 <경주 남산> <내실 악 노와집> <우연 또는 필연> <모든 양금> 등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현장을 일일이 다 다녀야 하는 사진의 특수성 때문에 강운구씨가 나름대로 체득한 진리가 있다. 대충전에 모셔진 금불상보다 자연과 함께하고 있는 마애불이 더 거룩하게 보인다는 사실이다. "일반인들은 물론 불자들조차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나 국·보물

급한 신비하고 거룩하게 여긴다. 그러나 내 눈에는 예술적 기교가 다소 떨어지지만 석공과 그 시대 민초들의 인력과 사상, 신앙심이 함축돼 있는 마애불이 더 거룩하게 보이고 애착이 간다. 마애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불상을 보는 시각과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사진 90여장으로 <삼국유사>의 현장을 기록한 그의 사진은 현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화를 사진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즉 '천년전에는 어퍼했을까'라는 그만의 화두로 역사의 현장을 담았던 것이다.

천년 세월 이전의 현장을 담았던 강씨는 "삼국유사의 허구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지명을 훑고 돌아서 찾아보면 그곳은 실제로 있었다"며 "그 신화의 현장에서 파고된 구조물이나 알아볼 수 없도록 뒤죽박죽이 된 지형들은 거의가 자연현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변형됐다"고 아쉬워했다.

현장을 찾기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그의 마음에 '작은 양금'이 있다. 불상, 탑 등에 근접한 울타리와 보호막 등 과잉보호, 환경오염으로 인한 온난화 때문인지 천년 역사를 머물고 있는 경주의 눈부신 풍경을 영글어 담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강운구씨는 무엇보다 단군·고구려·신라 등이 전해오는 북한을 갈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는 "북한의 유사현장까지 사진에 담아 북한의 글과 남한의 사진이 어우러지는 <삼국유사>를 독자들 곁에 내놓는 것이 저자의 뜻을 잇는 후손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정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스님의 부도인 정조탑과 비각.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 앞의 절터.



◇원도 정씨리에 있는 정도(정군성)를 감싸고 있는 청해진.